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다. 새롭게 만나는 동지들, 선배들, 어른들, 이 시대의 양심들, 인혁당 어르신들, 미전향장기수 어르신들, 지금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여전히 몸을 불사르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인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광범한 분야의 서적을 탐독하며 지내던 그 시절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는 데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78년 12월 출소한 이후부터 나의 삶은 운동과 도피와 구속의 연속이었다. 79년 초 병역문제대책위원회 활동에 따른 도피와 구속, 80년 민주화의 봄에 잠시 복학하였으나 곧바로 또 도피와 구속이 이어졌다. 그리고 선교교육원을 거쳐 기독교청년운동과 민중목회와 지역운동에 이르기까지, 20개월의 교도소 생활은 연이은 나의 활동을 지치지 않고 힘 있게 전개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역량을 준비하고 마련케 한 지극히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한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8년 전의 일을 기억해 내며 정리하기가 여간 쉽지는 않으나, 이렇게라도 간단한 소회를 정리하고 보니, 이 글을 쓰게 한 분의 계속된 권유가 고맙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순간순간, 지난 77년 4월 교도소로 이송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차에 타려던 순간 내 눈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며 힘없이 쓰러지신, 지금은 소천하신 지 20년 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여전히 나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분의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기 위해, 또한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가족과 친구와 선후배들 그리고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 당당히 서서 소명을 다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특별히 이 글을 빌어 78년 첫 번째 교도소 생활 직후인 79년 1월에 만나 도피와 투옥을 반복하는 나를 바라보며 온갖 궁핍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함께 헤쳐 온 나의 아내, 한번도 지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늘 내 옆에서 넘어지거나 어긋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협력해 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내 푸르른 '77년의 서울대 26동 사회학과 심포지엄



김석준 서울대 사회학과 75학번, 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총무,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소장, 2002년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원)

나는 1975년 사회계열로 입학하여 1976년 2학기에 사회학과로 학과 배정을 받았다. 입학 당시부터 부산고 선배들의 권유에 따라 사회과학연구회(원래 정식 명칭은 한국사회연구회였으나, 학교 당국에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었다)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다. 1976년 가을 축제 때 감나무골 사건에 연루되어 남부경찰서에 연행되어 마지막까지 잡혀 있었다. 당시 함께 구금되어 있던 양관수 선배와 전재주 선배는 제적당하고 말았다.

1977년 봄학기부터 사회과학연구회 회장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회학과 심포지엄도 준비하게 되었다. 1977년 서울대 학생운동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 사회학과 심포지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필자가 자서전 형식으로 썼던 <희망으로 가는 길>(2002, 도서출판 바우디자인)에서 관련 부분을 옮겨 보기로 한다.

3학년이었던 1977년은 사회학과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거기에 맞춰 사회학과 학생들은 10월에 있을 축제 직전에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1920년대 민족운동’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학생들은 3월말부터 자료를 모으고 문헌을 읽으며 원고 쓸 준비를 시작하였다. 8월에는 중간 점검을 위해 과천 근처의 수녀원에서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곳은 나중에야 알았지만 1974년 민청학련을 주도했던 학생들이 사전 모의를 했던 곳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도청이 되고 있었다. 당연히 우리 일행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때부터 감시망 안에 들어가 있었던 셈이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을 사람은 노동운동 부문의 나를 비롯해, 사회자(정확섭, 3년), 학생운동(홍덕률, 2년), 민족주의 운동(김필동, 3년), 사회주의 운동(심상완, 3년), 청년운동(박태수, 3년), 기독교 운동(조희연, 3년), 농민운동(김종채, 2년) 등으로 모두 8명이었다. 이 밖에 피정선(학생회장, 3년)과 박홍렬(총무, 3년) 등이 실무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다. 발표자들은 심포지엄 전날인 10월 6일까지 학과장에게 원고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발표할 내용을 그대로 학과장에게 제출하면 허락을 받지 못할 게 뻔했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할 원고와 심포지엄에서 직접 발표할 원고를 따로 만들었다. 드디어 심포지엄 하루 전날, 발표자들은 학과장에게 심사용 원고를 제출하고 나서, 최종 리허설을 위해 봉천동의 한 여관에 모였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틀림없이 어떤 팀에서 데모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자.”

행사의 규모가 큰 만큼 몇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 것이기에 데모를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데모를 준비한 팀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자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야. 준비한 팀이 없으면 우리라도 하자. 그 자리를 단순한 발표회 자리로 끝내기엔 아까워. 유신정권은 이제 거의 말기로 치닫고 있어. 더이상 방관만 해서는 안돼.”

“발표를 하는데 총 4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동안 지겹기도 할거다. 주제 발표를 3개 정도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만드는 거야. 그때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잡는 게 어때?”

“너희들 그걸 말이라고 해. 난 반대야. 너희들이 이런 껍질이 속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준비한 줄 알았다면 애초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거야. 난 데모를 하기 위해 이 심포지엄에 참가한

게 아니야.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학술적인 토론을 하고 싶었던 거야.”

한 친구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 친구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서 일단 심포지엄 현장에 가서 판단하기로 했다. 그런 자리마저 도청이 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우리는 잠깐 눈을 붙이고 집에 들렀다가 11시쯤 학과 사무실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학과 사무실에 모인 우리는 원고를 미처 완성하지 못해 발표를 포기한 심상완과 실무 준비를 맡은 박홍렬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학과장과 교수들이 학과 사무실로 몰려오는 게 아닌가.

“이 녀석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심포지엄하는 척하면서 데모를 하려고 했어? 더군다나 너희가 어제 제출한 원고는 가짜라면서? 아무리 세상이 막되어 간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스승을 속일 생각을 해.”

학과장이 야단을 치기 시작했다. 어안이 병병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아니, 선생님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너희들이 어제 여관에서 나눈 이야기가 전부 녹음이 됐어. 그 테이프를 직접 들었던 말이야.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렇게 엉성하게 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어.”

우리는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여하튼 너희들이 지금 심포지엄 장소로 가면 모두 데모 주동으로 몰릴 수 밖에 없으니까, 보내 줄 수가 없다. 그리 알아라.”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벌써 학생들이 26동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안 된단니까. 너희들이 가면 심포지엄에 관계한 사람이 모두 잘리고, 학과도 폐과가 될지 몰라. 절대로 안돼.”

“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 가려거든 우리들을 모두 짓밟고 가거라.”

우리는 몸싸움을 해서라도 발표회장으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워낙 완고하게 막아선 교수들을 뚫을 수가 없었다.

한편 심포지엄이 열리기로 되어 있던 26동 강의실에는 벌써 500여명의 학우들이 모여서 응성거리고 있었다. 26동 강의실은 당시 서울대 내에서 가장 큰 대형 강의실이었다. 그 자리

에는 발표자 중 한사람인 심상완도 있었다. 사회대 블랙리스트 1호였던 그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제 자체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쉽게 다루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워낙 신중하게 고민 고민해서 글을 쓰는 편이었던 심상완은 원고를 미처 완성하지 못하여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발표자들과 떨어져서 먼저 26동 강의실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심포지엄의 실무 준비를 책임지고 있던 박홍렬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6동 강의실에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예정 시간이 지나도 발표자들이 나타나지 않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발표자들이 학과 사무실에 연금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학생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발표자들을 풀어 주라!’ ‘심포지엄을 속행하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다. 그런 과정에서 심포지엄 준비 주체의 일원이었던 심상완과 박홍렬은 자연히 자주 발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데모 주동자로 찍히게 되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다른 한 팀에서 시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이들이 제기하려던 쟁점은 학도호국단 철폐 문제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심포지엄을 속행하라는 구호로 시작된 시위가 ‘학도호국단 철폐하고 학생회 부활하라!’로 이어졌고 마침내 ‘유신 철폐, 독재 타도!’로 변해 갔다. 26동 강의실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강의실 밖으로 나와 주변을 돌면서 시위를 계속했다. 시위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출동한 전경들에 의해서 시위를 하던 학생들과 26동 강의실에 남아 있던 학생 전원이 관악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연행된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되었다.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학생들은 대부분 A급으로 분류되어 제적되고 그 중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다. B급은 징계 조치를 당하였고 C급은 훈방되었다. 심상완과 박홍렬은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주동자로 찍혀 구속되었다. 몇몇은 제적을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주 애매한 희생자들도 생겨나곤 했다. 경제학과 3학년이던 강천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그는 학생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말 학구적인 학생이었다. 심포지엄의 주제에 흥미를 느껴 26동 강의실에 갔다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바람에 관악경찰서까지 연행이 된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훈방

대상이었다. 그러나 취조하던 형사가 무릎을 꿇으라고 하자 그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거부하면서 대들었다. 그러자 형사는 그를 C급에서 B급으로 등급을 올렸다. 그 후에도 모욕적인 언사를 해대는 형사에게 대들고 항의를 계속하자 이번에는 A급으로 등급을 올렸다. 그 결과 강천은 제적당하고 말았다. 당시에는 강천처럼 애매한 희생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 친구들 때문에 나는 더욱 큰 마음의 빔을 안게 되었다.

한편, 반짝이는 기지로 사지를 탈출한 친구들도 있었다.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신원이 드러날 경우 A급으로 분류되어 제적을 당했을 몇몇 친구들은 다른 친구의 학번과 이름을 대어 C급으로 분류되어 다음날 훈방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훈방을 할 때 다시 학번과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제 자신이 낸 학번과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몇몇은 다시 조사를 받고 제적되었는데, 어떤 친구는 학번과 이름을 정확히 대는 바람에 유유히 풀려나올 수 있었다.

물론 당시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임 주임이 사실을 발설했다더라면 그 친구 역시 다시 끌려들어 갔을 것이다. 당시 벌써 18년째 학생과에 소속되어 학생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임 주임은 서울대 문리대 학생운동의 신증인이었고 그런 만큼 학생 운동가들에게는 원성의 표적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자신은 학생 데모를 미리 탐지하여 데모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학생이 유유히 훈방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도 그는 일단 침묵을 지켜 주었다. 임 주임은 정년 퇴직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모은 수천 점에 달하는 학생운동 관련 자료들을 서울대 박물관에 기증했다. 실제 학생운동의 주역들은 수배와 검거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자료를 모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시절, 그는 아무 부담없이 유인물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기증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에서는 학생운동 자료실을 만들려고 한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나 할까.

학과 사무실에 연금되어 있던 발표자들은 시위가 진압되고 난 뒤에야 교수들에게 이끌려 학교 부근의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다. 많은 친구들이 경찰서로 끌려가 고초를 당하고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친구들이 감옥을 가거나 제적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다들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교수님들은 학교가 곧 휴교 상태에 들어갈 것이니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틀림없이 경찰이 추적할 것이라 생각하고 하숙집으로 연락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미 형사들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찾으러 왔다는 거였다. 그렇다면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일단 붙잡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가? 부산 집에는 틀림없이 경찰이 감시를 하고 있을 터였다.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 막막해 하던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것은 내가 태어난 고향 봉화였다. 4살 때 부산으로 떠나 왔기에 고향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그러나 방학 때면 가끔씩 가족과 함께 찾았던 고향, 그 중에서도 특히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산소가 아련히 떠올랐다. 그래, 일단 봉화로 가자.

이른바 뜻하지 않은 도피 생활이 시작됐다.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갔다. 갑자기 주어진 빈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만한 방법이 별 달리 없었다. 겨우 대학 노트 한 권만 손에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계속될 지 모르는 이번의 여행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봉화까지 가는 길은 멀고 낯설었다. 우선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했던 영주의 부석사를 둘러 고향인 봉화군 물야면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청량리에서 중앙선을 타고 영주에 내리니 한밤 중이었다. 허름한 여인숙을 찾아 눈을 붙이고 아침 일찍 부석사 행 버스를 탔다.

그날은 마침 시골의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다. 버스는 장터로 나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나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빛으로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나 자신부터 그들에게 비칠 내 모습을 돌아보며 어쩔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 불거져 나온 광대뼈, 골이 깊이 패인 얼굴, 거칠고 굵은 손마디. 시골 버스에 탄 남정네들은 마치 석굴암의 부처를 지키는 나한들이 꿈틀거리며 벽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민중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완전히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스스로 민주주의자로 자처하고 민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설 새 없이 다짐하고 외쳤건만, 막상 민중들 바로 곁에서 그들과 전혀 다른 나를 발견했던 것이다. 결핵 약을 달고 살았던 나의 험썸한 얼굴, 시커먼 안경테, 고운 손마디가 그들과 분명

한 경계를 그어놓고 있었다. 자신들과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을 대하는 듯한 경계의 눈빛, 그 눈빛들을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었다.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이질감, 뛰어남을 수 없는 장벽이 그들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알 수 없는 좌절감과 회의를 느꼈다. 나는 민중인가? 내가 민주주의자인가? 나는 민중을 위해 진정 무엇을 해왔나? 내가 하는 운동이 과연 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버스 안에서 느낀 혼란과 당혹감은 버스를 내려 부석사까지 들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다. 길 양편으로 늘어선 과수원에는 가지마다 탐스럽게 매달린 사과들이 가을 햇볕을 받아 붉게 영글고 있었다. 그 사과나무 사이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땀 흘려 사과를 수확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 한 사람이 다가와 빨갭게 익은 사과를 던져 주며 말했다.

“총각, 사과가 잘 익었으니 하나 먹고 가게”

나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으면서 버스 안에서 느낀 당혹감이 어찌면 스스로의 자격지심에서 나온 과민반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민중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살다보면 어느새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생겼다.

정말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가 보다. 당시 대부분의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문화유적 답사란 유유자적한 사람들이나 즐기는 고상한 취미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고 가치를 식별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 본 부석사 무량수전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값진 문화유산인지 솔직히 알지 못했다. 오히려 사명대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나무를 보면서 사명대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읽으며 감동을 받았다.

부석사를 둘러 본 다음 소주 한 병과 오징어 한 마리를 사들고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 아버지가 열한살 때 돌아 가셨고 사진 한 장 남긴 게 없으니 할머니가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도 모른다. 어른들의 말씀으로는 굉장히 어질고 인자한 분이셨다고 한다. 할머니 산소 앞에서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얼마 전에 배웠던 노래를 한 곡 불러 보았다. 음치인들 어떠랴, 당시의 내 마음을 이처럼 잘 표현할 노래가 있으랴!

동창이 밝았느냐 고향생각에

어업간 깊이 든 잠 놀라 깨어나
사방을 두루두루 두루 살피도
꿈에본 고향산천 간 곳이 없네

울 아배무덤가에 피던담배꽃
그 꽃 한 줌 꺾어다가 말아 피웠소
또 한 줌 꺾으려다 눈물이 나와
너울너울 담배 연기 잡을 수 없네

울 어메무덤가에 핀 목화꽃
그 꽃 한 줌 꺾어다가 이불 지었소
누나야 시집갈 때 지고나 가소
너울너울 목화 이불 지고나 가소

울 할매무덤가에 핀 진달래
그 꽃 한 줌 꺾어다가 술을 빚었소
할매야 이리 나와 한잔 받으소
너울너울 진달래주 취하나 보소

우리님 무덤가에 울던 두견새
내 이리네가 올 줄 왜 몰랐던가
간밤에 뒤숭숭한 고향 꿈들이
오늘의 너를 보려 그리했나 봐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가까운 친척들이 대부분 부산으로 나오는 바람에 봉화에는 친척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 1972년 대홍수 때 떠내려간 할아버지의 물레방아간 터를 둘러보고

개울 건너 칠촌 아저씨 내외의 오두막에서 몇일을 보내다 울산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같이 하숙을 하던 사회학과 동료인 권태욱의 집이 울산에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를 하니 권태욱이 반갑게 맞았다.

“야, 빨리 와라. 우리 집에는 상학이도 와 있다. 금마도 심포지엄 구경갔다가 시위 참여하고 용케 빠져 나와 여기 와 있다. 우리 집은 내가 워낙 모범생이니까 별 문제 없을까다.”

태욱이 네는 울산에서 얼음과자 공장을 하고 있었다. 마침 운동회 철이라 얼음과자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다. 특히 그 해에는 빨아먹는 얼음과자인 ‘쭈쭈바’가 대 히트를 쳤었다. 그래서 태욱이네 공장에서는 ‘쭈쭈바’ 대신 ‘쯔쯔바’라는 이름의 얼음과자를 만들고 있었다.

오랜 하숙집 룸메이트이기도 했던 상학이와 함께 달리는 일손을 도와 ‘쯔쯔바’를 만들었다. 한 닷새 정도 일을 한 다음 혹시 냄새를 맡은 형사들이 올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상학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둘은 경주 일원을 돌아다닌 다음 태욱과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동안 태욱이 먼저 상경하여 상황을 파악해 오기로 한 것이다. 태욱의 이야기에 따르면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발표자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발표자들은 이미 다 조사를 받았으니, 나만 관악경찰서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서 경찰서에서 하룻밤 조사를 받고 나왔다.

한편 당시까지는 운동에 그다지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권태욱이 기독교 계통의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급속히 변화해 갔다. 그러다 3학년 겨울 방학 중에 향림교회에서 있었던 기독교 학생회 중심의 유신철폐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되어 감옥으로 갔다. 아들이 구속된 데 충격을 받은 태욱의 아버지는 이후 지병이 악화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태욱이 감옥에 있을 때 태욱의 어머니는 종종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석준이 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러 된 거 아이기? 그런데 니는 와 안 끌리 가고 있노?”

정말 가슴이 미어졌지만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다. 이런 아픈 지적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슴에 빛으로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어쨌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심포지엄 사건 때 구속되지 않아 죄책감을 느낀 발표자들이 학교가 다시 개강을 하는 10월 28일에 맞추어 데모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그 주동자의 하나로 내가 지명된 모양이

었다. 사실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학과장은 다짜고짜 나를 불러 10월 2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계룡산으로 등산을 가자고 했다. 데모할 계획이 없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였다. 보호 차원에서 격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으니 바람 쐬 겸해서 산이나 타자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와 정대조, 김종채, 신상덕은 김진균 교수와 학과장을 따라 계룡산으로 가기로 했다. 재미있었던 것은 두 교수는 등산 준비를 완벽히 해 왔는데 우리들은 마지못해 따라온 판이라 구두를 신고 터덜터덜 나왔다는 것이다. 갑사에서 계룡산을 넘어갈 때에도 교수들은 훨훨 나는 듯이 산을 가는데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했다.

우리는 동학사 아랫마을에서 하루를 묵고 수안보 온천에서 두 번째 밤을 보냈다. 이날 모두가 훌쩍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는 대화는 대학 생활 중에서 교수들과 나눌 수 있었던 가장 진솔한 대화였다. 마냥 근엄하기만 하고 학생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던 교수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암울한 독재 체제하에서 고뇌하는 지식인의 한 단면을 훑쳐 볼 수 있었다.

새삼스러울 것도 별 대단한 것도 아닌 경험담을 장황하게 늘어 놓은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다. 당시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많은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들이 감옥으로 끌려 간 데 반해서, 나는 대학을 온전히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운 좋게 남들보다 일찍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유신시대를 온전히 살아 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후 내 삶에 있어서 원초적인 부끄러움과 갇기 힘든 빛을 졌다는 부채의식으로 남아 있었다. 대학교수가 된 이후에도 이 부끄러움과 빛을 갚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다 갚지는 못한 것 같다. 유신 독재에 짓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푸르렀던 내 젊은 시절의 푸르른 기억을 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뉴질랜드의 첫 한국인 변호사가 된 권태욱과 최근 밀양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상학에게 묵은 우정의 인사를 보낸다. 아울러 긴급조치9호 시대를 함께 했던 모든 벗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참을 수 없는 것은 '클종' 이었다

1977년 4월 7 한신대 고난선언 사건



김현수 한신대 신학과 75학번. 1986년 안산노동교회 창립, 1987년 노동상담소 운영, 1987년 어린 노동자들을 위한 야학 시작, 맞벌이 자녀들을 위한 탁아소 운영(현)

지난 4월 2일 오후, 1977년 '한신대 고난선언'으로 구속 수감된 동지들이 서울 석계역 근처 다방에서 만났다. 지금 영국에 유학이 있는 이영재를 제외한 오용식, 정상시, 김하범 그리고 나. 그동안 우리는 때때로 만났지만 고난선언 사건을 돌이켜 보고 그 의미를 묻는 자리로는 실로 28년 만의 일이었다.

다방에서 녹음기를 켜놓고 옛날을 돌이켜 생각하며 그 사건이 당시 어떤 정황 속에 있었는지, 또 현재의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놓고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실로 진지할 수 있었다. 참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어떻게 녹음을 풀지 걱정을 하며 돌아왔는데, 고마운 일인가, 녹음은 날라가버리고 말았다.

우리의 대화를 녹음에 담아놓는 일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날 확인할 수 있었다. 고난선언 사건은 지금도 우리 삶의 정체성의 일부라는 사실을. 때때로 만났지만 그 날 서로가 새삼 그토록 반가웠던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래 대담형식으로 글을 엮으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몇 토막으로 정리해 본다.